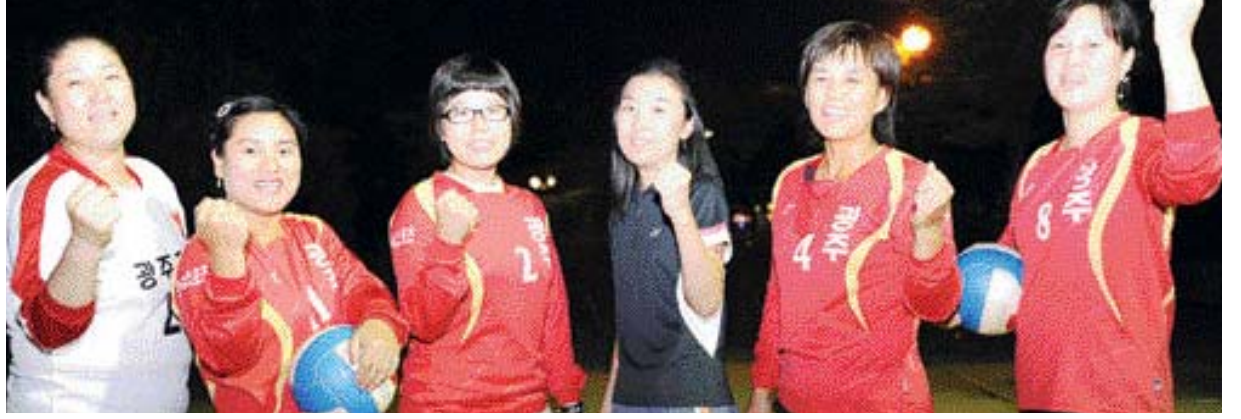


# 족구로 세상을 만나다



왼쪽부터 서선희, 이복순, 한선영, 김은옥, 박남숙, 차재영씨.

## ■ 광주 유일 여성클럽 '광주첨단족구'



▲ 스파이크 하는 박남숙씨

“차면 안되고 발을 대야지... 좋아 그렇게”

지난 23일 밤 8시 광주 남부대학교 뒤편 첨단 무양공원 족구장. 백종선(42) 광주 첨단족구클럽 회장이 차재영(여·40)씨에게 발을 다루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백 회장의 지도를 받으며 공을 다루는 차 씨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기만 하다. 한 편에서는 박남숙(여·40)씨가 첨단족구 클럽 남자회원들과 공을 주고 받으며 몸풀기를 하고 있다. 네트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박 씨의 공격이 날카롭다. 안축차기나 발등차기 등 화려한 족구 기술이 터져나온다. 남자회원들이 강력한 박 씨의 공격에 찔끔매기 일췌다. 운동시작 10여분이 지나지 않아 박 씨의 얼굴에선 붉은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리지만 여성회원들은 쟁기느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여성족구? 하고 의문부호를 던질지 모르지만 이들은 광주에서 유일한 여성족구 클럽인 '광주첨단족구 클럽 여성부회원'들이다.

지난해 7월 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박남숙씨가 주축이 돼 8명의 회원을 모아 출범했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왜 족구? 하는 주변의 시각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선수들 스스로가 공이 날아오면 머리로 수비를 해야 하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발로 공을 다루야 하는 등 족구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해 클럽을 꾸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첨단족구클럽 백 회장과 김철기(50)고문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줘 이제 광주 유일의 족구클럽으로 당당한 자리매김 하며 전국대회 우승을 향한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족구는 구기종목이라기 보다 가장 보편화된 놀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족구의 유래를 찾아보면 그 뿌리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 맥을 이어온 민족 구기임을 알고 놀란다.

족구는 국내에서 태동된 유일한 구기종목으로 지난 1990년대에 대한축구협회가 창설된 후 전국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생활체육 종목으로 범국민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족구는 전신 운동으로서 좁은 공간에서도 별다른 장비나 도구없이 아주 간편한 옷차림에 공 하나만 있으면 재미도 있고 충분한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어 특히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현대 직장인의 심신수련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운동이다.

더욱이 족구는 다른 종목과 달리 규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다.

특히 족구는 옛 문헌에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부터 짚따위나 마른 풀로 공을 만들어 중간에 벽을 쌓고 공을 차 넘기는 경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아 족구의 역사는 1300년도 더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족구를 통해 만난 첨단클럽 여성족구회원들은 숫자가 적지만 일당백의 전사들이다.

지난해 7월 창단, 3개월 만인 10월 진주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토하며 주변을 놀라게 했으며 현재까지 7개 대회에 출전, 준우승과 3등 3번을 차지하는등 성과를

## 여자들이 왜 족구냐구요?

건강과 꿈을 키우기 위해 시작했어요

지난해 7월 회원 8명 모아 출범

매주 세차례 만나 인간관계 소중함 배워

갈고 닦은 실력, 전국대회 우승 도전

올렸다. 매주 화·목·토요일 오후 7시30분~10시까지 첨단 무양공원에서 만나 체력을 다지고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 여성 클럽이 없기 때문에 광주 첨단클럽 족구 회원들과 게임도 하고 연습을 한다. 박 총무는 “남자 회원들과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훈련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남숙 총무는 매일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족구 마니아로 1년도 안돼 팀의 공격수로서 남자들도 놀랄 만한 기량을 갖췄다.

그렇다고 박 총무가 축구같은 족구와 관련된 것은 종목을 했던 것도 아니다. 평소 첨단족구클럽을 눈여겨 봤던 박 총무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어머니 배구선수 출신들을 규합, 족구단을 만들었다.

자신이 태동시킨 클럽의 전력향상을 위해 남보다 더 땀을 흘렸고, 1년6개월만에 우수비수로 시작해 세터를 거쳐 지금은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남자들 못지 않은 강력한 공격이 돋보이는 팀의 주축이자 멀티플레이어.

서선희(41)씨는 2개월의 짧은 경력이지만 박 총무와 더불어 팀의 간판선수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2주 연습후 전국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낼 정도로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한다.

팀 막내인 한선영(21)씨는 남부대 유아교육과 2학년에 재학중이며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족구를 해야겠다고 클럽을 찾을 정도로 족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팀 세터를 맡기 위해 훈련중이다.

이외에 팀 최고참인 서순자(57)씨는 3년 경력으로 손자가 넷이나 되지만 족구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찾고 있다.

최희희(54)씨도 3년 경력으로 세터를 맡고 있다. 최근 젊은 한선영선수가 가입해 선배 세터로서 노하우 물려주기에 바쁘다.

이복순(37)씨는 3개월 경력으로 좌수비를 맡고 있다. 남편이 첨단족구클럽 회원으로 남편이 이끌려 족구를 시작했지만 이제 정기모임을 하루도 거르지 않을 만큼 족구의 매력에 빠져있다.

박남숙 총무는 “오는 10월 저희가 준우승을 차지했던 진주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팀워크를 다지고 있지만 육아등 1인 3역을 하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우승에도 전하겠다”고 활짝 웃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수비하는 차재영씨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80 / 010-722-0100

10215300-9510